

No.20161207-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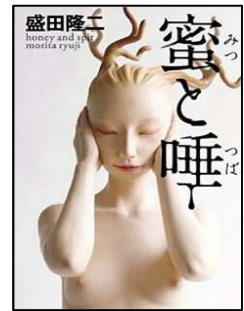
제목: 꿀과 침

저자: 모리타 류지

페이지수: 308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8월 17일



<내용소개>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여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심리 스릴러

27세 남성 '카지 료헤이' 는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는다. 그가 프리랜서 작가로서 처음 월간지에 기고한 글을 본 '미호코'가 4년 만에 연락을 해 온 것이다. 미호코는 료헤이가 대학생 시절 가정교사를 맡았던 학생 '타쿠미'의 모친으로, 타쿠미는 중학교 입학 시험을 4개월 앞두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사실 미호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료헤이는 죄책감을 품은 채 지내왔다.

연락이 완전히 끊겼던 4년 간, 미호코의 아름다운 외모는 여전했지만 그녀를 둘러싼 환경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아이가 죽은 후 소원해진 부부 사이는 회복되지 못한 채 이혼하게 되었고, 그녀는 생계를 위해 유흥업소에 발을 들인다. 지금은 작은 바의 마담인 미호코는 료헤이를 초대하고, 그는 그 곳에서 일하는 싱글맘 '아이카와 사키'와 대형 부동산 회사에서 근무하는 단골 손님 '하타노 테츠야'를 알게 된다. 가게를 찾는 이들 중 미호코와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남자들은 수없이 많은데, 미호코는 그 중 하타노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이야기는 료헤이, 미호코, 사키, 하타노 그리고 미호코와 재혼한 새 남편 '코스기 시게오' 5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미호코의 전남편과 옛 내연남, 아들 타쿠미에 이르기까지 인물들의 관계가 얹히고 설켜있다.

이 소설은 료헤이의 시점에서 전개되지만 실질적인 주인공은 미호코다. 팜프파탈의 매력을 지닌 그녀를 둘러싼 수상한 일들. 시게오가 자살미수에 이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경찰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단순 사고사인지 위장된 타살인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호코와 료헤이의 과거가 차차 밝혀진다. 감추어져 있던 죽음의 진상, 그리고 미호코의 진실은 무엇일까?

리얼리즘의 명수라 불리는 작가의 첫 범죄 미스터리 소설이다. 사건 자체의 구조나 트릭 설명, 깜짝 놀랄 반전 등은 이 글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매력적인 인물들의 복잡한 관계, 수수께끼처럼 조금씩 드러나는 내면에 초점을 맞추며 세밀하고 무게 있는 스릴러를 만들어냈다. 작가가 미호코를 통해 전하려는 인간의 본성은 부정적이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삶을 마주하려는 인물들을 통해 희망을 남겨둔다. 제목은 본문에서 직접 설명되지는 않지만 미호코를 염두에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흐르는 액체는 달콤한 꿀일까, 더러운 침일까? '불

운하고 기구한 운명의 여성'과 '선한 인상을 내세워 타인을 교묘하게 파멸로 몰아 넣는 악녀' 중 미호코는 어느 쪽일까?

<저자소개>

모리타 류지

1954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정보지 <피아>의 편집자로 근무하면서 소설을 집필하여 1985년 와세다문학신인상에 입선하였다. 1990년 《스트리트 칠드런》이 노마문예신인상 후보작, 1992년 《사우다지(Saudade)》가 미시마 유키오 상 후보작에 올랐다. 1996년부터 작가로 전업, 남녀의 연애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인의 '있을 자리를 찾아가는 여행'을 그리고 있다. 결혼을 테마로 기로에 선 여성의 갈등과 치유를 다룬 《맛있는 물》, 견실하게 살아가던 중년 남성의 미칠 것 같은 사랑의 행방을 추적한 《넘쳐나는 마법》, 각각 큰 문제를 안고 있는 33세 남녀가 진실한 사랑을 찾는 《조용한 두 사람》, 시간이 제한된 고령자의 연애를 박진감 넘치는 필치로 그린 《몸도 마음도》 등 리얼리즘의 명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타 작품으로는 33만부를 넘긴 《밤의 끝까지》, 논픽션 《아버지, 길고 긴 안녕-남자의 간호일지》등 다수가 있다.

No.20161207-002

제목: <가에데 가오카 동물원>시리즈 (전 3권)

저자: 니타도리 케이

페이지수: (1권) 302 / (2권)255 / (3권) 239

장르: 소설

출간일: 2012년 03월 09일/ 2013년 06월 07일/ 2014년 07월 10일



<내용소개>

동물원을 배경으로 개성 강한 인물들이 펼쳐나가는 유쾌한 미스터리 시리즈

주목 받는 신예 미스터리 작가 니타도리 케이가 선보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 있게 읽을 수 있는 미스터리 소설 시리즈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차례로 발표한 세 권의 연작으로, 동물원을 배경으로 유쾌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다.

어릴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 몇 번 가보는, 성인이 된 뒤에는 그다지 놀러 갈 일이 없는 장소 '동물원'이 수수께끼와 미스터리의 공간이 된다는 점이 색다르다. 첫 번째 편인 《오후부터 악어 날씨》는 자칭 '괴도 솔로몬'이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차례로 훔치는 이야기다. 가에데가오카 동물원에서 사육사로 근무하는 주인공은 이름에 '모'가 세 개나 연이어 나온다는 이유로 '모모'라고 불린다. 평소처럼 출근해 정해진 일과를 실행하던 중, 항상 명랑한 신참 사육사 '나나모리'가 기운이 없어 보이고 홍보부의 담당자들이 관리부 건물에서 나와 모여 있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다. 바다악어 한 마리를 데려가겠다는 괴도 솔로몬의 정중한 통보를 보고 바보 같은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악어를 세어보니 정말 한 마리가 없다. 경찰도 조사에 나서지만 사라진 악어의 행방은 묘연하고, 두 번째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만다. 모모와 직원들은 그의 범행을 막고 사라진 동물들을 찾게 될까?

2편 《타조는 경량차에 해당합니다》에서도 주인공 모모와 나나모리, 미스터리를 좋아하고 약간 변태 같은 성향을 지닌 핫토리, 툴툴대면서도 챙겨주는 촌데레 사육사 '토키' 등 1편에 이어 멤버들이 활약상이 돋보인다. 시민 마라톤 대회를 지켜 보던 이들 앞에, 웬 타조 한 마리가 코스에 난입해 역 질주하며 소란을 일으킨다. 모모와 동료들은 타조를 잡기 위해 뒤쫓다가 불에 타 죽은 것으로 보이는 시체를 발견한다. 타조와 피해자는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 해당 사건이 일단락 되자 이번엔 토키에게 스토커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3편 《길 잃은 알파카를 주웠습니다》에서는 나나모리의 친구가 실종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단서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폭신평신했던 털을 가진 알파카다. 이번에도 전편의 멤버들이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간다.

범행과 동물원이라는, 잘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소재를 능숙하고 코믹하게 엮어낸 작가의 필력

이 인상적이다. 개성 넘치는 등장인물들이 티격태격하면서 문제에 대처해나가는 모습과 더불어 동물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엿보는 재미가 있다. 읽는 동안에는 웃음을, 읽고 난 후에는 산뜻함을 안겨 줄 엔터테인먼트 소설이다.

<저자소개>

니타도리 케이

1981 년 치바 현에서 태어났다. 아유카와 데쓰야 상 가작 입선 《이유가 있어 겨울에 나온다》로 데뷔하였다. 매력적인 캐릭터와 유머러스하고 리드미컬한 문장, 정교하고 치밀한 트릭이 돋보이는 작품들로 폭넓은 독자층의 인기를 얻고 있다. 앞으로가 더 주목되는 젊은 미스터리 작가다. 데뷔작부터 이어지는 〈시립고교〉시리즈와 드라마화 된 〈전력 외 수사관〉시리즈, 〈가에데가오카 동물원〉시리즈 등 시리즈화 된 작품도 많다. 그 외 《계산대까지의 추리 - 서점의 명탐정》, 《셜록 홈즈의 불균형》등이 있다

No.20161207-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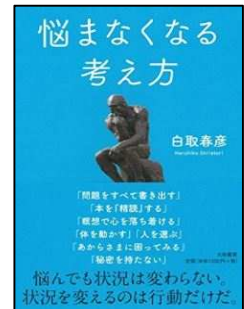
제목: 고민이 사라지는 사고방식

저자: 시라토리 하루히코

페이지수: 192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11월 23일



<내용소개>

불필요한 고민과 괴로움에서 해방시켜 줄 '로고테라피'적인 사고방식 실천서

고민이 있으면 그것이 해결되기까지 계속 머리 속에 남아 나를 괴롭힌다. 오래 생각 한다고 해서 알아서 해결되지 않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결국 스스로를 옥아매는 결과만 가져온다. 왜, 우리는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고민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저자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통해 아예 고민거리가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자고 제안한다. 무엇보다 행동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주창한 '로고테라피(Logotherapie)'와도 연결된다. 로고테라피란 쉽게 말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채워진 자리를 긍정적인 희망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저자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거나 본인은 물론 주위 사람들의 기분까지 어둡게 만드는 결과를 피할 '사고 회로의 재구성'을 돕는다. 본문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민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의 특징, 자기 자신을 내면에서부터 바꿀 수 있는 방법, 보다 편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줄 생각과 행동 팁,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방법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무리하는 흐름이다.

고민은 오래 생각한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해결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내용이 무엇이든, 고민에 매달리기 일쑤인 사람들에게는 '인색함, 게으름, 허세, 망상 습관'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매년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누구에게나 예쁘다는 말을 듣는 외모를 갖고 싶다는 욕구는 허세다.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날씬하고 아름다워지면 무조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 하지만 실제로 체중 감량과 몸매 교정 효과를 가져다 줄 운동과 식이요법은 철저히 하지 못하고 미루게 되는 게으름, 다이어트에 돈이나 시간은 투자하고 싶지 않은 인색함이 자리잡고 있다. 머리 속에서 불필요한 고민을 치워버리려면 이미 자기가 물들어 있는 이 네 가지 특징부터 없애야 한다. 고민할 시간이 있다면 몸이 움직이라는 말은 의외로 효과적이며, 문제 사항을 종이에 전부 써내려 보는 것은 추후 판단에 큰 도움을 준다.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복장·인상·얼굴로 가까이 할 사람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가려내는 팁을 전한다.

이 책은 세상과 적당히 거리를 취하며 한 가지 너무 몰두하지 않는 삶의 가이드를 잡아준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을 실천하고 끈질기게 달라붙는 고민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보자.

<목차소개>

- Chapter 1. 고민거리에서 벗어나는 사고방식
- Chapter 2. 자신을 내부에서부터 변화시키는 방법
- Chapter 3. 보다 편하게 사는 사고와 행동
- Chapter 4. 자율적인 사람이 되면 고민은 사라진다

<저자소개>

시라토리 하루히코

1954년 아오모리 시에서 태어났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철학·종교·문학을 공부했으며 철학과 종교에 관한 해설과 명쾌한 논평으로 정평이 나 있다. 주요 저서 및 번역서로는 누계 130만부를 돌파한 《초역 니체의 말》, 《머리가 좋아지는 사고 기술》, 《독학술》,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는 사고 기술》, 《이 한 권으로 성서를 이해한다!》등이 있다.

No.20161207-004

제목: 인공지능이 바꾸는 일의 미래

저자: 노무라 나오키

페이지수: 488

장르: 과학

출간일: 2016년 11월 16일



<내용소개>

인공지능의 발달로 점점 희미해질 사람과 기계의 '일'의 경계, 그 미래를 객관적으로 전망하다

최근 로봇을 활용한 자동수술이 성공했다. 지금까지 수술실의 로봇은 의사의 눈길이나 손길을 따라 조작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로봇이 수술부위를 적외선 카메라로 추적하고 센서로 바늘과 실의 압력을 측정하며 스스로 봉합해낸 것이다. 의사는 옆에서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감시자의 역할을 맡는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과거 병력과 현재 건강 상태에 기반해 적합한 약물과 치료를 처방하는 인공지능 의사 왓슨(미국 IBM사 개발)은 지난 1일부터 국내 모 병원에 배치돼 진료를 시작했다. 매우 정교한 솜씨와 신중한 판단력을 요하는 의료계에서도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인공지능 붐 속에서, 이 책은 인공지능의 본질과 그것이 초래할 변화를 기업과 기업 내 근무자의 시점에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1부는 인공지능 응용의 방향성을 살펴본다. 인공지능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간결하게 분류 및 분석해 본 다음,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화이트칼라의 지적 생산 프로세스에 생겨날 변화를 짚어본다. 이어서 인공지능과 연계해 인프라 구성의 주역이 될 IoT도 다룬다. 1부 후반부에서는 같은 듯 다른 인공지능의 타입을 분석/인식·인지/학습·대화 세 파트로 나누어 진화 양상과 생활에 가져다 줄 변화를 전망해 본다.

2부는 10년 후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다.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이에 대해 살아남으려는 기존 서비스의 움직임의 주제로, 개별업계와 사내 부문의 사례를 통해 논한다. 제조업, 광고·마케팅 업계, 농림수산업, 인사와 인재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인공지능 연구와 응용의 국제적 상황을 비교하고, 다른 분야끼리 합쳐지며 벌어질 업계 재편성을 염두에 두며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지 고찰한다. 전반은 일본의 상황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후반에서는 딥러닝과 같이 점점 '강한 인공지능'의 영역이 확장되는 가운데, 인간은 어떻게 인공지능과 공존해나갈 수 있을지 그 핵심 키워드를 찾아보고 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로 어떻게 자리잡게 될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 30년 이상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연구해 온 저자는 책임감을 갖고, 경제 사회와 법률적 요인을 감안해 과한 기대론이나 비관론 없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인공지능 앞에 무력해지지 않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익힐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목차소개>

제 1부: 인공지능이 바꿀 10년 후의 일과 사회

제 1장: AI(인공지능)은 어디까지 진보했는가

제 2장: 화이트칼라의 일은 어떻게 변할까?

제 3장: IoT와 인공지능, 확장되는 연계

제 4장: 데이터 분석이 가져올 기업경영의 변화 - "Analytics"가 뒷받침하는 "사실" 기반 경영

제 5장: "인식 · 인지능력"의 향상이 가져올 사회생활의 변화

제 6장: "학습 · 대화능력"의 향상이 가져올 사회생활의 변화

제 7장: 업계횡단, 다양한 인공지능 개발과 기계창작 - 미디어의 장래를 중심으로

제 2부: 인공지능이 지탱할 10년 후의 비즈니스

제 8장: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시작된다

제 9장: 기존 서비스의 개선과 효율화

제 10장: IT화 · 고도화하는 제조업

제 11장: 광고 · 마케팅도 크게 변화

제 12장: 농림수산업에도 확장되는 활용의 장

제 13장: 간접업무에도 변화의 물결

제 3부: 인공지능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제 14장: 일본의 AI개발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제 15장: AI와 인간의 미래 - 딥러닝이 인간을 몰아낸다?

<저자소개>

노무라 나오유키

메타데이터 주식회사대표이사사장, 호세이대학 대학원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 연구과 겸임교수. 1962년에 태어났으며 1984년 도쿄대학 공학부를 졸업하였다. 2002년 큐슈대학에서 이학박사를 취득하여 NECC&C 연구소, Just Systems, 호세이대학, 리코 근무 등을 거쳐 호세이대학 대학원 객원교수가 되었다. 2005년, 메타데이터(주)를 창업하고 빅데이터 분석, 소셜 활용, 각종 인공지능응용 솔루션을 제공하였다.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MIT) 인공지능연구소 객원 연구원에서는 <인공지능의 아버지> 마빈 민스키와 한 때 같이 있었으며, 같은 MIT의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와도 의론한 바 있다. 딥러닝을 받쳐주는 이미지넷(ImageNet)의 기초가 된 워드넷(WordNet)의 활용 연구에 종사하였고, 일본의 제 5세대 컴퓨터 개발기구 ICOT에서 스피노프된 지식베이스 개발에도 참가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종사함과 더불어 산업,

생활, 행정, 교육 등 사회에서 폭넓게 AI를 활용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정보처리 및 AI 응용에 대한 잡지에 다수의 글을 투고하고 강연활동도 하고 있다.

No.20161207-005

제목: 전쟁의 사회학

저자: 하시즈메 다이사부로

페이지수: 345

장르: 사회, 인문

출간일: 2016년 07월 14일



<내용소개>

‘전쟁’을 세계사와 지정학과 연결시켜 사회현상의 하나로 분석하며 반전(反戰)을 준비한다

인류는 오랜 시간을 전쟁과 함께 해 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다양한 양상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좁혀지지 않는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차이 또는 경제적 격차를 원인으로 한 번 시작된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사는 곳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의 저자는 사회학자로서, ‘전쟁’을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현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전쟁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부터 출발하여, 여러 사상가들의 정의를 통해 양측의 굽히지 않는 의지, 폭력이라는 수단을 필수 조건으로 둔다. 서장에서는 차근차근 결투와 전쟁, 전쟁의 범죄성, 교전권, 사변과 전쟁, 내전과 전쟁, 노예와 전쟁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1장부터 4장은 고대/중세 시대 군의 조직, 무기와 전술의 발달, 기사와 무사의 등급과 군의 종류 등에 이어 전쟁사의 첫 번째 혁명, 화약의 등장을 다룬다. 화약의 발명과 실용화가 전투방식을 어떻게 바꿔놓았으며 총과 대포가 전쟁 및 사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5장부터 8장은 이론적인 부분이다. 국제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로티우스가 남긴 고찰, 근대적 전쟁의 표준 이론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통해 나폴레옹이 기존의 전쟁 양식을 어떻게 전복시켰는지 밝힌다. 미국의 군사평론가 머한의 해군 및 해양전쟁 전략, 독일군의 참모였던 몰트케의 천재적인 전략에 대해 논한다. 9장은 인류사에 빠질 수 없는 제1차 세계대전을 군사사회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며, 10장에서는 더욱 규모가 커지고 항공기와 전차 그리고 핵무기가 전면에 나선 제2차 세계대전의 내용과 여파를 검증한다. 이후 테러의 위협과 앞으로의 전쟁 양상을 전망하며 마무리한다.

저자가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강의한 <군사 사회학> 내용에 기반한 책으로, 이해하기 쉽고 친절하게 지식을 전하고 있다. 일반 시민도 알아둬야 할 전쟁 관련 국제법을 배울 수 있다.

세계는 반전(反戰)을 외치고 평화를 희망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전쟁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한국만 해도 베이비붐 세대부터는 전쟁을 직접 겪어본 적 없는 이들이 다수다. 이 책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인 전쟁의 역사와 원인, 양상, 이론을 폭넓게 다루며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과 마음가짐을 알려줄 것이다.

<목차소개>

- 서장: 전쟁이란 무엇인가
제 2장: 고대의 전쟁
제 3장: 중세의 전쟁
제 4장: 화약혁명
제 5장: 그로티우스와 국제법
제 6장: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제 7장: 머한의 해전론
제 8장: 몰트케와 참모본부
제 9장: 제1차 세계대전과 리델 하트
제 10장: 제2차 세계대전과 핵무기
제 11장: 기묘한 일본군
제 12장: 테러와 미래의 전쟁

<저자소개>

하시즈메 다이사부로

사회학자, 도쿄공업대학 명예교수. 1948 년 가나가와 현에서 태어났다. 도쿄대학 대학원 사회학 연구과 박사과정을 거쳐 1995 년부터 2013 년까지 도쿄공업대학 교수로 재직하였고, 대학 내 세계文明센터 부센터장을 맡았다. 《세계는 종교로 움직인다》, 《처음 만나는 구조주의》, 《일본 역 식민지 계획》, 《교양으로서의 성서》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No.20161207-006

제목: 성실하게 살면 손해인가요?

저자: 아마미야 마미

페이지수: 208

장르: 자기계발

출간일: 2016년 06월 27일



<내용소개>

노력·연애·외모·살아가는 방식 등에 대한 여자들의 푸념과 한탄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책

우리는 고민이 생기면 타인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하지만 그것을 100%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해주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실망할 지도 모르겠지만, 애초에 고민은 타인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작은 일부터 출발하기로 한다. 포털 사이트에 고민보다는 가볍고 일상적인 '푸념'을 들어주는 연재 코너를 마련한 것이다. 해결 방법 여부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격려만이라도 받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왔다. 금세 인기 코너로 자리매김했다.

이 책은 당시 게재되었던 글들을 다시 정리하여 책으로 발간한 것이다. 별 일 아니지만 신경 쓰이고, 현실에서 주위에 털어놓긴 망설여지는데 홀로 안고 있으려니 너무나도 답답한 일들이 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익명에 기대어 이 코너를 찾았다. 간단한 푸념, 한탄을 맘껏 펼쳐놓는 것만으로도 시원하게 떨쳐버리는 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작가는 자신에게 도착한 푸념들을 몇 가지 공통 주제로 분류하여 비슷한 것들을 묶었다. 무엇이든 열심히 했지만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연애를 하고 싶지만 남자친구는 생기지 않는 이유, 외모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자신감 하락, 세상과 조금 다른 삶의 방식 때문에 빚어지는 갈등, 총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에는 3~4가지 케이스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처음에는 실제 사연을 설명하고 이후 작가가 건네고 싶은 조언과 생각해 봐야 할 점 등을 제시한다.

집안일도 육아도 일도 모두 완벽하게 해내고 있지만 정작 남편에게는 사랑 받지 못한다, 잘생긴 전 남자친구의 연애에서 심하게 데였지만 '외모 우선 주의'를 버릴 수는 없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다 등 20대 초반~40대에 걸친 다양한 연령대에서 가볍고 묵직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작가의 답변은 '사회적인 옳고 그름'에 구애 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이미 푸념의 주인공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저자는 고민을 올린 사람만의 사정이나 변수 때문에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취하지 못할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는 독자에 따라 공감할 수 있는 사연도, 없는 사연도 있다. 하지만 독자들은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타인에 대한 이해심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리한 관점에서 여성성을 논하며 공감을 이끌어내는 에세이로 젊은 여성들의 지지를 받아온 작가는, 최근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신중한 어휘에 따스함이 깃든 문장을 읽다 보면, 이런 작가가 너무 일찍 떠났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질 것이다.

<목차소개>

제 1장: 노력하고 있는데 보답 받지 못해요

제 2장: 연애를 하고 싶은데, 왜 못하는 것일까요

제 3장: 외모 자체가 고민이에요

제 4장: 제가 살아가는 방식, 잘못된 걸까요?

<저자소개>

아마미야 마미

작가. 기존 사회의 여성성을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을 쓴 자전적 에세이 《여자를 악화시켜(女子をこじらせて)》로 데뷔하였으며, 이후 에세이를 중심으로 문화 서평 등의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저서로는 《도쿄를 살다》, 《자신 없는 방에 어서 오세요》가 있다. 2016 년 11 월 15 일 사고로 자택에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No.20161207-007

제목: 어른을 위한 처음 배우는 과학

저자: 이케가미 아키라

페이지수: 240

장르: 과학

출간일: 2016년 10월 07일



<내용소개>

과학 6개 과목의 핵심만 쓱쓱 뽑아 배운다! 쉽고 재미 있는 과학 입문서

‘과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를까? 여러 법칙과 이론? 복잡해 보이는 수식? 그저 책 속에서나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일상과 먼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사실 우리는 거의 매일 아침 일찍부터 과학을 접한다. “금일 강수 확률 50%” 이 역시 과거의 데이터에서 산출해낸 과학적인 수치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여러 베스트 셀러의 저자인 이케가미 아키라가 현대의 사회 시스템과 국제 환경 및 지구의 미래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과학 지식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본문은 물리, 화학, 생물, 의학, 지학, 환경문제 6개 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1장 물리 편은 소립자의 해설로 시작하여 핵분열 및 핵무기와 원자력 발전으로 점차 확장된다. 원자력 발전 사고를 겪은 일본이기 때문에 정부가 플라토늄을 확보하려는 의도 등 정치적인 화제도 등장한다. 2장 화학 편은 연료전지에서 수소 에너지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핵융합 발전과 같은 새로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3장 생물 편에서는 생명연장의 가설과 더불어 진화론, 유전자 등 자주 이슈가 되는 핵심 소재들이 등장한다. 4장 의학 편은 에볼라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바이러스와 인류의 싸움, 공존의 역사를 해설한다. 이식수술, 다기능성 세포, ES세포, iPS세포 등 재생의료 관련 키워드도 나온다. 5장 지학 편은 지진의 종류와 화산분화와의 관계, 대륙이동설과 판 구조론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 6장은 환경문제 편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회의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온실가스 연구 역사 등을 돌아보고 파리 협정 내용을 설명한다.

이 책은 전공에 상관없이 현대인의 기본 소양으로서 이 정도의 지식은 익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이슈가 된 내용, 관련된 국제정세를 엮어내 쉽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과학 초보자도 즐겁게 읽을 수 있다. 원자력 발전 사고 우려, 지진 발생,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 등 한국도 겪고 있는 흥미로운 화제들이 포진해 있으므로 한 번쯤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목차소개>

서장: 과학이란 <의심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 현대 과학 6과목

제 1장: 소립자에서 원자력까지 - <물리>시간

제 2장: 수소 에너지의 메커니즘은? - <화학>시간

제 3장: 생명탄생은 어디까지 밝혀졌을까? - <생물>시간

제 4장: 바이러스에서 재생의료까지 - <의학>시간

제 5장: 수도직하지진에서 화산분화까지 - <지학>시간

제 6장: 지구온난화는 멈출 수 있는 것일까? - <환경문제>시간

<저자소개>

이케가미 아키라

1950 년 나가노 현에서 태어났다. 게이오기쥬쿠 대학을 졸업하고 NHK 에서 기자와 캐스터 일했으며 1994 년부터 11 년간 《주간 어린이 뉴스》에서 아버지 역을 맡았다. 2005 년부터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다방면에서 활약 중이다. 도쿄공업대학 리버럴 아트 센터 교수를 거쳐 현재는 특명교수를 맡고 있다. 메이조대학 교수. 저서로는 《내다보는 힘》, 《어른의 교양 - 우리들은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가?》, 《전하는 능력》, 《정보를 살리는 능력》, 《그거였어! 세계사》, 《세계를 움직이는 거인들 <정치가 편>》등이 있다.

No.20161207-008

제목: 모네의 발자취

저자: 하라다 마하

페이지수: 153

장르: 미술, 교양

출간일: 2016년 11월 30일



<내용소개>

미술관 큐레이터였던 소설가 '하라다 마하'가 풀어내는 인상파의 대표 화가 '모네' 이야기

회화분야에서 '인상파'란, 19세기 후반 프랑스를 중심으로 생겨나 퍼진 사조 중 하나다. 과학의 발달에서 비롯된 실증주의와 사실주의의 영향을 받아, 눈 앞의 대상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똑 같은 물건도 시시 때때로 와 닿는 빛, 각도, 대기의 변화에 따라 순간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달라진다. 즉, 사물의 인상이 변하는 것이다. 인상파의 주요 화가에는 클로드 모네, 오귀스트 르누아르, 반 고흐, 폴 세잔 등이 있다.

이 책은 미술계 근무 경력이 있는 큐레이터 출신 소설가 '하라다 마하'가 모네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단출한 여정을 담고 있다. 저자는 20대 후반, 프랑스나 우연히 모네의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은 뒤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본문은 모두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모네가 태어나던 시기의 사회상을 둘러본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모네는 산업혁명으로 세계가 큰 변혁을 맞이하던 때에 태어났다. 당연히 프랑스를 둘러싼 화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모네는 제1회 인상파전에 작품을 출시하며 신진아티스트로 주목을 받게 된다.

2장에서는 인상주의 화풍의 등장과 그 특징을 이야기한다. 에두아르 마네를 비롯한 몇몇 화가들은 당시 권위 있던 프랑스 아카데미에 반기를 들고 나선다. 아틀리에의 인공 조명, 모델의 정해진 포즈를 보고 똑같이 그리는 것을 벗어나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그려야 한다며 틀에 박힌 회화만이 상을 받는 현실에 저항해 대회 낙선자들끼리 전시회를 열었다. 이런 사고방식에 동의하고 이어받은 화가들의 작품도 더불어 소개한다.

3장에서는 모네의 발자취를 본격적으로 따라가 본다. 아주 짧은 순간을 형상화 해내는 모네는 하나의 주제로 여러 그림을 그리는 연작을 즐기기도 하였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지베르니에서 제작한 《수련》시리즈가 대표적인 연작이다.

4장에서는 자신의 소설인 《지베르니의 식탁》에 대해 모티브와 주인공, 주제에 대해 언급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모네를 느낄 수 있는 몇몇 장소를 프랑스편, 일본 국내 편으로 나누어 간략한 설명과 함께 소개한다.

대부분의 인상파 화가들은 40대 이후에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20대에는 돈도 인기도 없어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그 시기를 극복하고 묵묵히 목표한 길을 갔기에 얻을 수 있던 결과다. 설레는 마음으로 모네를 다시 접한 작가의 글을 통해, 그의 미스터리 했던 인생과 인상파의 흐름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나와 모네의 만남

제 1장: 모네가 살았던 새로운 시대

제 2장: 인상파 회화의 참신함

제 3장: 모네의 발자취를 따라

제 4장: 소설 《지베르니의 식탁》에 대해

제 5장: 마하의 '모네의 행방' 안내

에필로그: 지금, 다시 모네와 만나는 의미

<저자소개>

하라다 마하

1962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간사이가쿠인대학 문학부 일본문학과 및 와세다대학 제2문학부 미술사학과를 졸업하였다. 마리무라 미술관, 이토추 상사를 거쳐 모리 미술관 설립 준비실 재직 시, 뉴욕근대미술관(MOMA)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2005년 〈카후를 기다리며〉로 일본 러브스토리대상을 수상하며 소설가로 데뷔하였다. 2012년 〈낙원의 캔버스〉는 제25회 야마모토 슈고로 상을 수상, TBS계열 교양 프로그램 〈왕의 브런치〉가 선정하는 BOOK 어워드에서 대상을 받았다. 기타 작품으로 《지베르니의 식탁》, 《암막의 게르니카》, 《디트로이트 미술관의 기적》, 《리치 선생》등이 있다.

No.20161207-009

제목: 이런 괴물, 본 적 없어!

저자: 후지모토 토모히코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3년 12월 07일



<내용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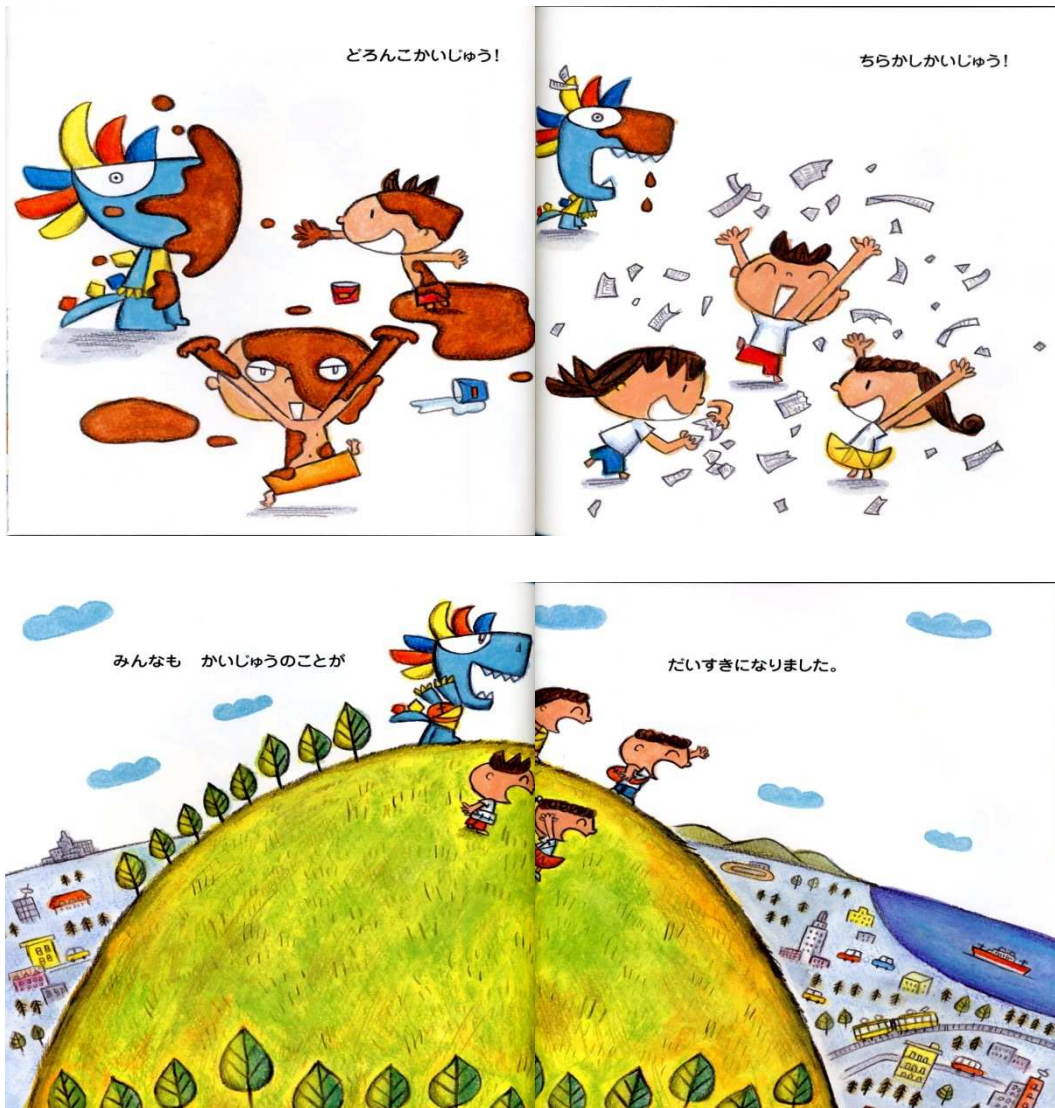
조금은 다른, 친절하고 착한 꼬마 괴물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그림책 좀 그만 읽으렴!”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건 그만두렴!” “신발을 오른쪽 왼쪽 매번 반듯하게 둘 필요 없어!” 꼬마 괴물의 엄마는 항상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괴물답지 않게 착하고 정리하길 좋아하는 아이를 보며 “이런 괴물은 본 적 없어!”라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고민 끝에 아빠와 엄마는 아이를 인간 아이들이 뛰어 노는 유치원에 맡겨 버립니다. 그 곳에는 괴물보다 더 무서운 친구들이 놀고 있습니다. 진흙을 뭉쳐 던지고, 종이를 찢어 날리고, 블록을 쓰러뜨리는 등 꼬마 괴물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에게는 의외의 부분도 있습니다. 달리다 넘어지면 와서 다친 곳은 없는지 돌봐주고, 그네를 탈 때면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아이들도 꼬마괴물도 서로서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꼬마 괴물은 유치원을 무사히 졸업하고, 친절하고도 훌륭한 1학년이 됩니다.

평범하지 않은 꼬마 괴물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또래 아이들과 지내며 본래 성격의 좋은 점과 괴물다운 면을 고루 갖추게 됩니다. 크레용 느낌의 귀엽고 간결한 일러스트가 엉뚱하고 독특한 이야기와 어우러지며, “이런 괴물 본 적 없어!” 라는 주요 대사를 따라 하게 됩니다.

<본문 이미지>





<저자소개>

후지모토 토모히코

그림책 작가, 동화작가, 작사가, 아소비우타(놀이노래) 작가. 도쿄에서 태어났다. 1991년 고단샤 그림책 신인상 수상하였다. 그림책 《잘 받았어 버스》시리즈, 《고구마 버스》, 《수상한 나뭇잎》, NHK <엄마랑 같이>의 아소비우타 그림책 《고양이 가끔 사자》 등의 작품이 있다. 보육 경험을 살려 아이들의 신체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작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No.20161207-010

제목: 탐정견 스콧과 동료들

저자: 마사오카 케이코(글) 후쿠다 이와오(그림)

페이지수: 143

장르: 아동 소설

출간일: 2013년 05월 15일



<내용소개>

탐정견 스콧이 친구들의 힘을 빌어 유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런던경찰국의 애칭 '스코틀랜드야드'에서 따온 이름을 가진 개 '스콧'. 한 마을에 삼 대째 살고 있는 히라가 집안의 한 가족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 코타로는 의사로서, 셜록홈즈의 열정적인 팬입니다. 항상 밝은 모습의 엄마 미스즈는 그림 그리기가 취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 쇼타는 스콧의 주인이라기 보다는 친한 친구입니다. 스콧은 영국이 고향인 보더콜리 종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활동적인 성격입니다. 예민한 코와 귀를 가졌으며 인간에게 뒤쳐지지 않는 기억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번 보고 듣고 냄새를 맡은 것은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인간의 언어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개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글자를 쓰거나 전화를 걸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콧은 집중력과 직감을 발휘하며, 쇼타의 힘을 빌어 탐정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스콧과 쇼타는 산책에 나섰다가 우연히 유괴 사건을 목격합니다. 현장에 남은 것은 독특하게 생긴 트럼프 카드 한 장. 당사자는 한 가게의 사장으로, 범인은 이복고 요구 사항을 보내옵니다. 다음 날 오후에 어느 빌딩 옥상으로 '왕비의 눈물'을 가져오라는 내용입니다. '왕비의 눈물'은 그리스의 왕비가 몸에 지니고 있던 루비 보석으로서, 저주가 깃들여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엔의 가치를 갖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루비입니다. 경찰에 알리면 사장은 죽일 것이라는 협박도 있었기에, 직원 켄이치는 범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지만 범인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 켄이치는 행방불명 됩니다. 범인의 정체는 누구이며, 켄이치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cctv 영상에는 켄이치가 옥상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스콧과 쇼타, 그리고 켄이치의 동생 리카는 '스콧 팀'을 결성해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관찰하기 좋아하는 똑똑한 개 '스콧'이 쇼타와 리카와 힘을 합쳐 탐정견으로서 무사히 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콧의 1인칭 시점에서 전개되며, 전체적인 기승전결 구성이 뚜렷하고 어려운 문장이 잘 나오지 않아 술술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현명하지만 사람에 대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개, 아직 어린 두 아이들이 경찰의 도움 없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까 궁금할 것입니다. 세 팀원들이 마침내 목적을 달성해내는 흥미 진진한 이야기를 통해 '서로 힘을 합친다'는 것의 대단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목차소개>

안녕 / 주운 트럼프 / 역시, 사건! / 계속 깜짝 놀람 / 조사 개시 / 달려, 달려, 달려! / 늦은 밤 바다에 라이트가 빛나다 / 클로버의 비밀 / 앗, 저 사람이다! / 사건 이후

<저자소개>

마사오카 케이코(글)

그림책 및 아동문학 작가. 미국계 광고 에이전시를 거쳐 1984년 《검은 수염의 산타클로스》로 그림책 작가로 데뷔하였다. 동양의학, 식품 영양 관련 저서도 다수 있다. 그림책을 읽고 들려주기 활동 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후쿠다 이와오(그림)

1950년 오카야마 현에서 태어났다. 《덜커덩 덜컹》으로 그림책 일본상을 수상하였다.